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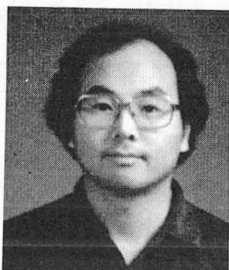
따라서 증상에 따른 검사보다 일정기간에 따른 주기적인 검사가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내 발생 보고에 대한 역학조사 보고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감염돈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양돈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요구된다.

오제스키병의 근절을 위해 현재와 같은 광역의 방역

체계보다 각 농장-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를 확립하여 공동으로 소 지역 단위의 박멸대책을 실시함이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보조해 주고 지역단위로 실시한 결과를 수집하여 그 다음 단계의 계획을 수집하여 실시함으로써 대처함이 바람직할 것 같다.\*

## 양돈농가 검사 기피, 감염돈 이동 대책 세워야



하 민 호

(충남 합덕가축병원장)

저는 박사학위 출신도 아니고,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다. 다만 일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양돈농가들을 직접 지도해 본 결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한 대략적인 것은 어렵듯이 알고 있으나, 감각만 가지고 논할 수 없는 질병이므로, 직접 지역현장에서 느낀 문제점 등을 시작으로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 나름대로 적어본다.

현재 당진군 합덕근교 양돈농가들은 돼지오제스키병의 실체에 대해서 소상이 아는 사람이 없다. 또 관계기관이나 연구소의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은 것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한테 듣거나 잡지 등을 통해 잠깐 읽어본 정도라는 점이다.

특히 가축위생시험소나 군의 수의사들에게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한 문의가 가끔 들어오거나, 진단신청이 들어올 경우는 응하기도 한다. 소규모와 전업이하를 찾아다니며 교육하거나 항체검사 등을 한 적이 없으며, 양돈농가들은 민권을 내세우며 일부에서 검사에 대해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양돈농가들이 항체검사를 할 때 가격이 비싸 두당 몇 천원이 소요되는 검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최근 서산군에 발생된 돼지오제스키병은 품문에 듣기에 발생된 경력이 있는 경기도 모 농장에서 주인이 알고 있으면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동안 잠재되었던 병원성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원인을 볼때 양돈농가 스스로 자중하여 종돈구입요령을 숙지하고, 지역에서 구입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같은 문제들을 볼 때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에서는 양돈농가에 대한 지도 및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용 영화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

면 슬라이드라도 마련하여 가축무료순회 진료시간 등을 이용, 써비스보다는 기술적인 교육, 홍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돈기술수준이 완전히 정착된 단계가 아니므로 정부에서는 양돈농가의 의견을 수렴, 지역방역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둘째, 지역관할 가축위생시험소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합덕군 시험소를 예를 들면, 소장(1명), 계장(1명), 도축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사원(3명), 나머지만 실제 일하는 인원(2명)으로 전부 수의사가 7명이라고 한다. 이들 수의사가 서산시·서산군·태안군·당진군 등 4개군을 맡고 있는데, 타 축종도 있어 여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이견 현실속에서 정부에서는 각 시험소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등을 점검해 주고, 그에 따른 여건 조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돼지오제스키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약 값이 비싸다는 이유이다. 일부농장에서는 시약 값이 비싸다

는 이유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싸지면 박멸할 수 있는 문턱이 가까와 지지 않을까 싶다. 바로 이런 금전적인 문제는 정부의 지원책이 요구된다.

넷째, 감염돈의 이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얼마전 서산군내 한 농장에서 발생된 돼지오제스키병의 근원지를 찾으려고 했으나, 축주가 일체 함구함으로써 종결된 일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정농장이 아니면 자기돼지를 다른 곳에 팔지 말아야 한다. 양돈농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인다면 문제없는 농장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돼지오제스키병은 방역작업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돼지의 이동 제한은 물론, 농장내 출입(차량·사람 등)을 통제해야 한다. 양돈농가들은 모든 매개체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찾아드는 질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 협회가입안내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돈인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본회는 양돈인의 공동관심 사항을 능률적으로 실현시킴으로서 양돈인의 사회경쟁력 지위향상은 물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가입자격 : 돼지 50두 이상 사육자

◎ 가입절차 : 9개 도협의회 및 산하 100개 지부에 가입신청서(소정양식) 제출

◎ 회원의 혜택

- 정책 및 제도개선
- 공인 종돈능력검정돈 등 우수종돈 구입시 혜택
- 본회의 각종사업에 동참
- 약품 및 기자재 알선
- 국내외 양돈정보 제공
- 공동시설물 이용 및 공동경제 활동 참여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지도
- 한국양돈진흥사업회의 사업동참
- 월간양돈·주간양돈정보지 무료제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및 각 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양돈회관 4층)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553-3942~6)